

하지만 주께서는

— 변화된 세상에서의 기도 —

주 예수님, 세상은 너무도 다르게 변했습니다; 저는 불안합니다. 하지만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: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(요 16:33)

주님, 저는 외로움이 두렵습니다. 언제까지 더 견디어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예수님,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: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(계 3:20)

주님, 저는 제 직장에 대해 불안하며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위기 앞에 두렵습니다. 하지만 주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: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(창 28:15)

주 예수님,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온갖 급격한 변화에도 학업에 집중하며 원만한 교우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. 하지만 주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. 주님은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. (막 10: 13-16)

주님, 저는 우리 교회와 구역모임 그리고 유년과 청년 사역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주께서는 길되시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게 바른 길을 보여주십니다. (시 23:3)



주님, 저는 건강관련 권장사항에 대해 파악이 안됩니다. 하지만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: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(요 10:27)

주님, 저는 넘치는 정보와 의견들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벅잡니다. 진지한 것과 선동적인 것, 사실과 거짓 - 도대체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? 하지만 주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, 곧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을 주셨습니다. (요 14:17)

저는 우리의 자유가 제한될까 두렵습니다. 또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아래 있게 될까 두렵습니다. 하지만 주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: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(마 28:20) /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(마 24:35)

예수님, 전염병이 통제되지 못한 채 늘 새로운 질병이 나타날까 두렵습니다.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. 하지만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: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, 내가 속히 오리니 (계 1:17,18; 3:11; 22:12) 아멘.

나 갈바를 알지 못하나,
주님만은 잘 아시네.
나 어찌해야 할지 모르나,
주님만은 이미 해결책을 갖고 계시네.
나 위로받을 길 없으나,
주님이 날 위로하시네 —
나의 아버지, 나의 마음은
아버지를 신뢰합니다.

바실레아 슐링크